

“권력과 맞선 주인공...나처럼 착한 청년 ㅎㅎ”

설 연휴 개봉 '골든 슬럼버' 주인공 강동원

일본 원작소설 보고 영화화 직접 제안
 “내 안에 비슷한 면 꺼냈어요...저 착해요
 뇌구조엔 50%가 영화...그 다음은 시사”

강동원(37)을 만났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배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와 자신감을 채워가는 듯 했다. 이전 주변을 둘러보는 넓은 시야도 확보했고, 앞날을 직접 설계하는 추진력도 장착했다. 강동원은 영화 이야기는 물론 개인의 상황을 풀어내는 데도 막힘이 없었다.

“지금 나의 위치? 글썽.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끌어올 만한 위치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엄청난 자원은 아니다. 딱 ‘골든 슬럼버’를 만들 정도다.”

14일 개봉한 ‘골든 슬럼버’(감독 노동석)는 원작인 일본소설과 영화를 본 강동원이 2010년 영화화를 제안하면서 시작된 작품이다. 대통령 후보 암살 누명을 쓴 평범하고 착한 청년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강동원은 “소시민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끝내 진실을 밝혀내 성공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길에서 금방이라도 마주칠 것 같은 평범한 인물은 강동원과 어울리지 않을 거란 선입견이 있다. ‘골든 슬럼버’는 이를 깨는 작품. 순박한 청년을 연기한 그는 “내 안에 있는 비슷한 면을 잘 살려보려 했다”며 “착해요, 저”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데뷔부터 좌우명은 ‘남에게 상처주지 말자’였다. 지금도 손해보고 살면 어머니는 말을 자주 한다. 20대 댄 치열하게 살다보니 앞뒤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그래서 까칠했다. 일도 해야 하고 나도 살아야 하니까. 경험이 조금씩 쌓인 지금은 다르다.”

‘사람’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

“20대 댄 고민이 많았지만 나눌 친구가 없었다. 99학번인데 99년도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으니깐. 한창 일하고 고민하는데 친구들은 학교 다니니까 공유가 잘 안됐다. 애들이 취직하고 나니 얘기가 통하기 시작했다.(웃음) 속상한 일, 고민을 나눌 친구는 정말 중요하다.”

공대 출신 강동원은 대학 동기들과 모바일 메신저에 대화방을 마련해놓고 이야기도 자주 나눈다. “나이 드니 애들이 점차 끈대처럼 돼가는 것 같다”며 흥도 본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만나는 ‘절친’은 가수 주형진, 고등학교 동창이다. 강동원은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친구라서 개가 입을 열만 큰일 난다”고 했다.

강동원은 어떤 말이든 솔직하게 꺼내지만 남이 듣기 좋은 살가운 말을 하는 법은 좀처럼 없다. 배우 김의성은 그런 강동원을 두고 “연예인다운 밝음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래도 한 번 인연을 맺으면 10년은 훌쩍이다. ‘골든 슬럼버’의 제작사인 영화사 집과 ‘마스터’, ‘검은 사제들’ 등 무려 7편을 함께 해왔다.

“믿을 수 있는 창작을 하는 영화사이다. 제작자인 이유진 대표님과 친한 관계거나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웃음). 알고지낸 10년간 돌이 따로 밥 먹은 건 딱 한 번이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지. 나에겐 영화계의 큰 누나 같은 분이다. 하하!”

강동원은 3월 유럽으로 향해 ‘LA 쓰나미’ 촬영에 나선다. 할리우드 활동의 시작이다. 영화는 LA에 다친 쓰나미를 다룬 재난 블록버스터. 강동원은 “수확관에서 일하는 서퍼 역할을 맡았다”며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멋진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머리에 은통 영화뿐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강동원의 뇌구조를 그리다면 뭐가 있느냐고 물으니 “영화는 50% 정도? 다방면에 관심이 있어 많은 게 뇌에 있다. 그 중 시사

문제가 크다. 균형 잡힌 시선을 가져야 하니까 여러 사회 공부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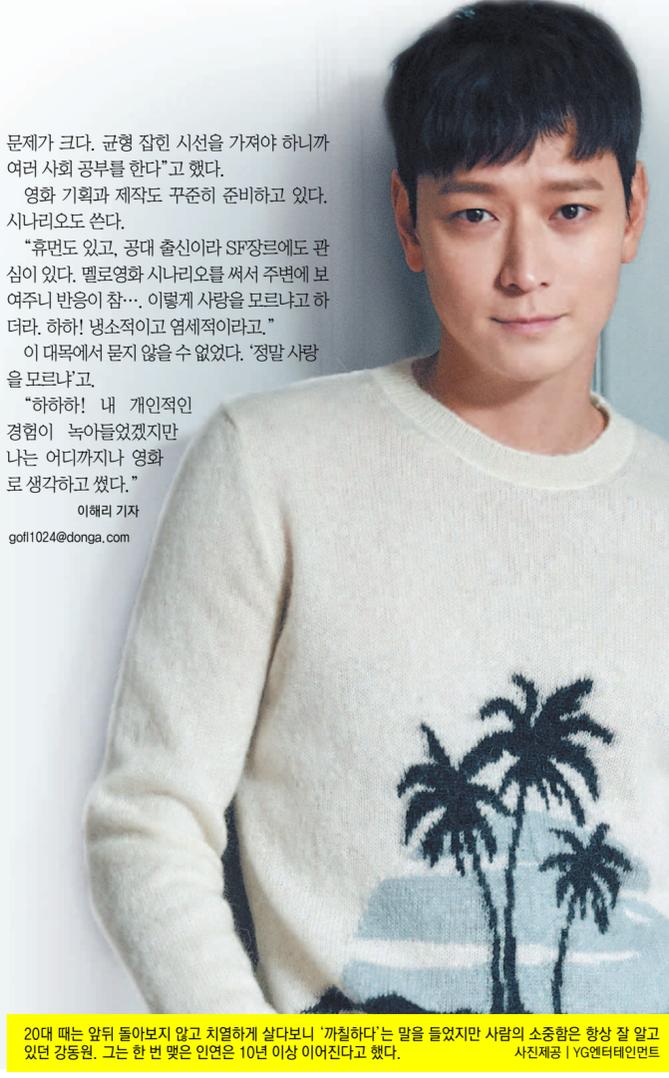
영화 기획과 제작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시나리오도 쓴다.

“휴먼도 있고, 공대 출신이라 SF장르에도 관심이 있다. 멜로영화 시나리오를 써서 주변에 보여주니 반응이 참... 이렇게 사랑을 모르냐고 하더라. 하하! 냉소적이고 엄세적이라고.”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사랑을 모르냐고

“하하하! 내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들었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영화로 생각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20대 때는 앞뒤 돌아보지 않고 치열하게 살다보니 ‘까칠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람의 소중함은 항상 잘 알고 있던 강동원. 그는 한 번 맺은 인연은 10년 이상 이어진다고 했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숫자뉴스

8200 장

최근 ‘뽀뽀’으로 대세로 떠오른 걸그룹 모모랜드 최신앨범 ‘그레이트’의 한터차트 12일자 일일판매량이다. 믿기지 않는 수치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되자 한터차트는 바코드 집계상 오류는 없었다고 했고, 유통사 측도 음반은 정상적으로 출고됐다고 밝혔다.

#해시태그 킷



‘제이’ 김동준의 뉴욕커 놀이

그림 제국의아이들 출신 연기자 김동준이 ‘뉴욕커 놀이’에 푹 빠진 모습이다. 미국 뉴욕을 여행 중인 그는 “지하철 표 뽑는데 20분 걸림. 블랙카 메라인 줄”이라는 글을 남겼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플랫폼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표를 뽑기까지 당황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해맑은 미소를 보인다. 심지어 새로운 경험에 한껏 떠들었다. 팬들은 “즐겁게 지내다 무사히 귀국하세요” “보스턴도 놀러오세요” 등의 반응을 보낸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김동준 #뉴욕커 #아직은어렵다

연예뉴스 HOT3

우블리 부부, 듀엣곡 음원수익 기부

추자현·우효광 부부가 듀엣곡 ‘그대잖아요’의 음원수익 전액을 기부했다. 13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해 ‘그대잖아요’ 음원으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기부하는 내용의 가입서에 서명하고 ‘착한권리’ 1호 회원이 됐다. 착한권리는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의 저작권,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권리를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성금은 부부의 뜻에 따라 국내 빈곤, 질병,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된다.

방탄 ‘DNA’, 美 RIAA 골드 인증 받아

그림 방탄소년단이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의 ‘골드’ 인증을 연이어 받았다. RIAA는 10일 방탄소년단의 ‘DNA’가 ‘골드’ 디지털 싱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초 ‘마이크 드롭’으로 케이팝 그룹 최초 골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RIAA는 디지털 싱글과 앨범 판매량에 따라 골드(50만 이상), 플래티넘(10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200만 이상), 다이아몬드(1000만 이상)로 인증한다. 디지털 싱글의 경우 디지털 다운로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등을 포함해 집계한다.

2PM 준케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그림 2PM의 준케이(김민준·30)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준케이는 10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준케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차량에는 혼자 타고 있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본인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해외 파트너사들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일정에 대해서만 상대 회사들의 의사를 존중해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워너원, 3월초 컴백

음악프로그램·예능 등 국내활동 집중

‘괴물 신인’ 워너원이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워너원은 이르면 3월 초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신인 아이돌 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워너원의 컴백으로 가요계는 또 한번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워너원은 컴백과 동시에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할 당시 KBS와 MBC의 파업 등으로 워너원은 음악방송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했다. 이번엔 그 아쉬움을 털겠다는 듯 국내 활동에 집중하며 팬들과 만난다.

이들은 3월 초 컴백 시기에 맞춰 팬미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다. 일찌감치 다수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녹화를 마쳤고, 컴백 후에도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간다.

워너원 컴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번엔 또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데뷔한 후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판매량 100장을 넘어서며 다양한 경제효과를 유발시켰다.

이들은 공백기에도 여전한 스타파워를 자랑해왔다. 매달 진행되는 아이돌그룹 브랜드평판 조사에서도 워너원은 늘 1~2위를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만큼 컴백 이후 이들이 써내려갈 각종 기록 경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너원은 일부 극성 팬들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워너원 매니지먼트사 YMC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받았없이 연락을 시도하는 팬들이 있다”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멤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소중한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리턴’ 합류 박진희의 무거운 어깨

고현정과 비교·시청률 책임전가 가능성도
 임신중 캐릭터 완벽 소화해야...건강 걱정

연기자 박진희가 고현정 대신 SBS 수목드라마 ‘리턴’에 극적으로 합류하면서 제작진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하지만 하차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박진희는 짊어지지 않아도 될 때까지 떠안게 됐다.

박진희는 13일 ‘리턴’ 촬영에 합류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와 맞물려 연기일 예정이었던 15·16회가 14일에 정상 방송하기로 해 박진희는 합류를 결정하자마자 촬영에 돌입했다. 박진희는 ‘리턴’ 제작진에게 ‘구세주’가 됐지만, 정작 자신은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는 중이다.

우선 시청자를 이해시켜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박진희

다. 박진희는 17%(날스코리아)의 높은 시청률로 주목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주인공이 바뀐 상황에 대해 시청자가 털이질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습’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하다.

물론 14회까지 이진욱을 포함해 신성록, 봉태규, 박기웅, 윤종훈의 존재감이 컸다고 하지만 박진희는 고현정의 그림자를 지워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리턴’과 상황은 다르지만 지난해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에 6회까지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여성에 인색한 한국영화

연진위, 한국영화 성 인지 통계 발표
 최근 5년 女 주연 24%·女 감독 6.8%

최근 5년 동안 여성주연영화는 전체 개봉작 중 24%에 불과했다. 또 여성감독 작품도 연 평균 6.8%로 비중이 매우 낮았다. 그만큼 한국 영화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이 여전히 낮으며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임을 드러낸 최초의 분석 결과다.

영화진흥위원회(연진위)는 최근 5년간 개봉 한국영화 중 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최대 스크린 수 100개 이상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주연, 감독, 제작자, 작가, 촬영 등 핵심 창작 여성

인력과, 여성 주연작의 개봉규모와 수익성을 파악한 ‘한국영화 성(性) 인지 통계’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석대상 321편 가운데 여성이 주연한 영화는 24%로, 77편이었다. 또 이 중 최대 스크린 수 100개 이상 영화는 ‘수상한 그녀’ ‘암살’ ‘아가씨’ ‘아이 캔 스피크’ 등 4편에 불과했다. 연진위는 “여성 주연 영화가 규모 면에서 남성주연영화보다 전체적으로 작게 기획되고 있다”면서 “자원 분배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주연영화도 중소부터 대규모까지 고루 기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여성감독 영화는 연 평균 73편의 대상작 가운데 6.8%(5편)였다. 여성 제

작자 작품은 22.2%(16.2편), 여성 작가가 참여한 영화는 30.1%(22편)이었다. 특히 여성 촬영 감독의 작품은 3.29%(2.4편)로, “기술을 요하거나 팀 내 위계가 강한 분야는 여성 진입이 더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핵심 창작인력의 여성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연진위는 “영화산업, 특히 자본이 대거 몰리는 장편상영영화에 유리한장이 공고하게 존재하며, 이는 여성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또 성별 불균형은 “기회의 공정성과 창작의 다양성 문제”로 연결된다. 연진위는 “이번 통계의 원 자료는 최소한의 것이어서 더 긴 기간에 걸쳐, 더 전면적으로, 더 다양하게 조사·분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을 강조했다.

윤여수 전문가 tadada@donga.com